

The FOUR SEASONS

한라인에게 영감을 주는 매거진 사계

2019 SEPTEMBER — Vol. 324



생산과 소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첨단 기술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자,
식량이 부족하지 않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
애그테크^{Ag Tech}다.
이는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인
획기적인 기술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산업인
‘농업’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사계 9월호』 본문 중

Contents

2019 — SEPTEMBER
Vol. 324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웹진으로 연결됩니다.
<http://hallawebzine.co.kr/>

발행일
2019년 9월 2일

Publish
(주)한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신천동 7-19) 02. 3434. 5791

Publisher
이석민

Editor in chief
기획팀 최태호

Editor
기획팀 이수민

Planning & Design
경성문화사 02. 786. 2999

Print
경성문화사



Cover story
ICT 기술이 농업에 접목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스케
일과 스피드로 농업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고 있다.
illust. 제니락

Trend

- 04 **Hot Keyword** 농업과 첨단 기술의 콜라보, Ag-Tech
- 06 **Power Creator** 미래형 선진농업을 만든다, ㈜팜패스
- 10 **Zoom In Trend** 역 안에서 식물을 키운다, 메트로팜 답십리점
- 12 **What's On** 지차체들의 애그테크 확산 노력

Life + Live

- 14 **Style Guide** 김광섭 프로의 '가을 라운딩 룩' 스타일링
- 18 **Tasty Story** 건강에 좋고 맛도 좋지만 냄새는 피하고픈 은행
- 20 **Lovely Family** S사업팀 박해찬 프로 가족
- 24 **Culture Salon** 시간과 자연이 빛은 최고의 액체, 와인
- 26 **Science Story** GPS의 위치는 시계가 결정한다
- 28 **Tourist** 호주에서 온 편지

Halla + Culture

- 34 **Look Into** 현대해상천안사육 현장
- 40 **Lead to Future** SNS 마케팅 확장 통한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 42 **Halla Class** 향긋한 꽃향기가 가득, 플라워 센터피스 만들기

Halla + IN

- 46 **Halla News**
- 48 **Halla Board**
- 49 **Get Healthy**
- 50 **Notice Board**

농업과 첨단 기술의 콜라보,
애그테크

Ag-Tech

4차 산업혁명이

각종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농업도 예외는 아니다.

첨단 기술 혹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점차 '첨단 복합 산업화' 되어가고 있다.

인류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식량 부족 위협에 대비하고

장래 먹거리를 발굴한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애플 · 구글 · 아마존 · 알리바바 등

기술혁신 기업들은 농업에 투자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모델을 재편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전 세계 농업 트렌드는

애그테크(Ag-Tech · Agricultural Technology)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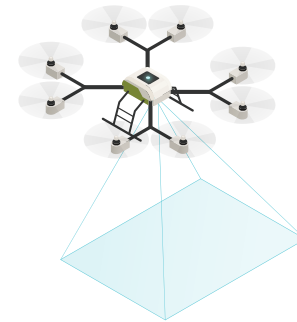
귀결되고 있다.

애그테크란?
농업 + 기술

애그테크는 농업(Agricultur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유통 기한을 늘리는 선도적인 분야다. 식량문제와 물 부족, 기후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히는 애그테크는 스마트팜보다는 넓고 상위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IT 기술을 활용해 물과 노동력 등의 투입자원은 최소화하면서 생산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작물 상태나 토양 비옥도, 기후 등에 따른 농업 정보를 얻는 것이다. 최적의 수확 타이밍을 산출하는 것도 애그테크의 주요 역할이다.

미국과 유럽은 일찍부터 애그테크 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중국과 일본 또한 최근 들어 애그테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에 나서고 있다.



66

애그테크의 역할은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작물 상태나 기후 등에 따른

농업 정보를 얻는 것이다.

99



농업 분야
미국 · 중국 · 일본

일찌감치 애그테크에 관심을 가진 미국은 로봇, 드론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중에서도 수직농장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애그테크 기업 '에어로팜스(AeroFarms)'에서는 연간 1,000t의 채소를 모두 '수기경재배(Aeroponics)'로 생산한다. 공중에 떠있는 뿌리에 각종 영양분을 섞은 물안개(Mist)를 분사하는 방식이다. 일본과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애그테크를 추진 중이다. 일본은 지난 2009년 '식물공장 보급 확대 종합 대책'을 수립해 관련 기업과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400여 개의 식물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파나소닉 · 도시바 등의 대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중국 또한 알리바바 · 텐센트 · 징둥닷컴 등 인터넷 기업들이 애그테크에 적극 뛰어들어, 정부와 함께 중국의 도시와 농촌 간 빈부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데 동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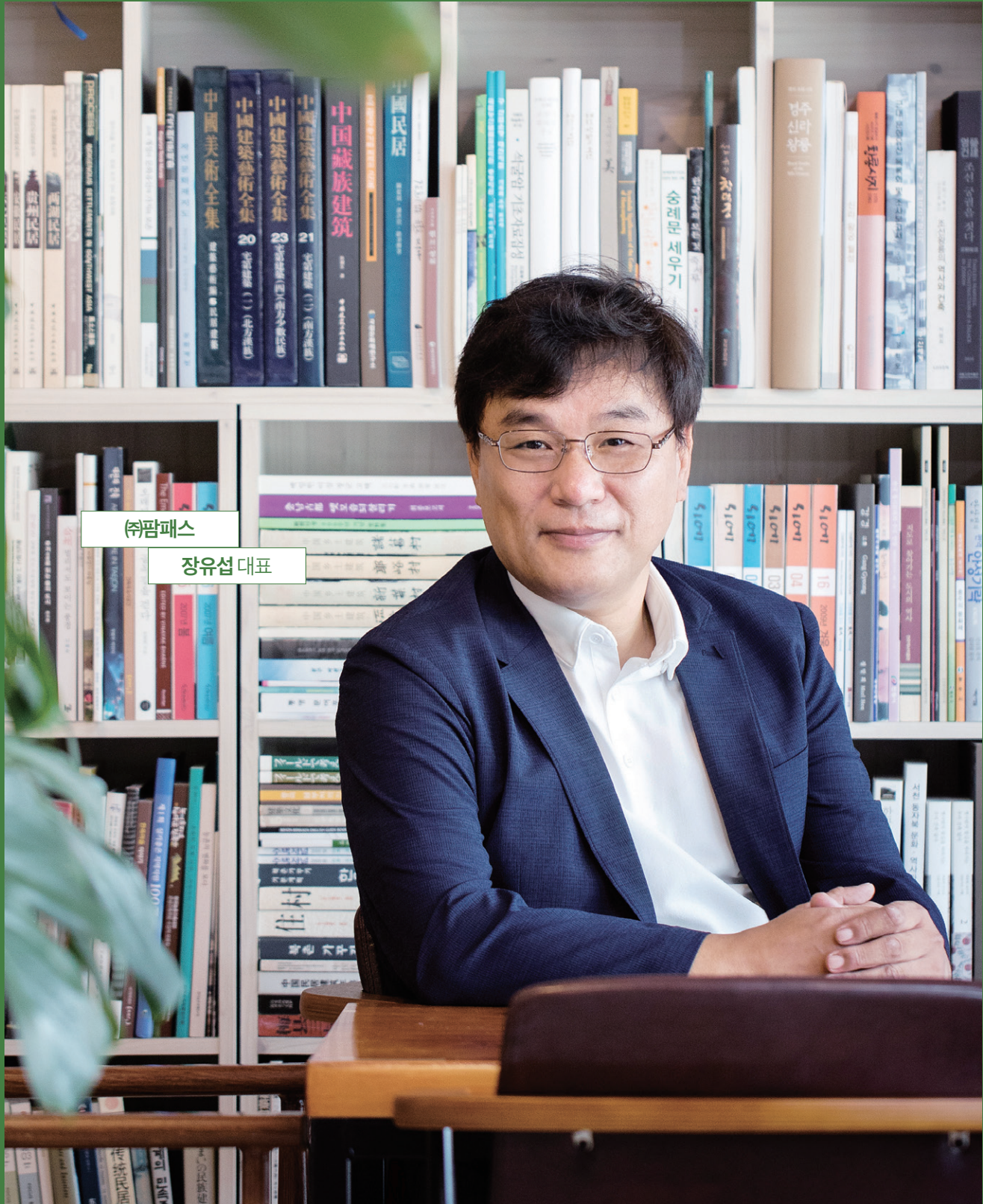
한국의 애그테크,
기대효과는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애그테크 보다는 스마트팜 구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 개별 농작물이나 가축이 최적의 상품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생육환경을 최적화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모바일 기기와 연결해 농장 상태를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에 까지 올랐다. 애그테크로 향하는 과도기인 셈이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첨단농업의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연관 산업계에도 투자 증대와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공략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경지가 협소하고 계절에 따른 기후변화가 큰 탓에 애그테크로 인한 식량 주권 확보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농가 간 시스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특정 작물의 최적화된 생육 환경을 찾을 뿐만 아니라 가격 추이의 정밀 분석을 통한 농산물 가격 폭락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농업 = 역동산업,
START UP!

농업 분야는 오랫동안 '그들(업력이 오래된 기업)만의 리그'로 여겨졌다. 진입장벽이 높고 변화가 더딘 보수적인 산업의 대표 격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엔 혁신적인 기술들이 농업에 접목되면서 역동적인 산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가 하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업계를 이끌어나가기로 한다. 스타트업의 진보된 기술과 창의력에 기존의 가치 사슬이나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스타트업이 주도하고 있는 '애그테크'. 앞으로의 혁신과 변화가 기다려지는 이유다.



(주)팜패스

장유섭 대표

함께하는 농업

미래형 선진농업을 만든다



‘○○테크’라는 용어가 이미 익숙해진 시대지만 애그테크(Ag-Tech)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용어다. 스마트농업, 스마트팜이라고도 일컬어지며 세계적 IT기업이 앞 다투어 투자에 나서면서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의 애그테크 시장 역시 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 중심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장유섭 대표를 만나 앞으로 (주)팜패스와 애그테크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었다.

글 편집부 사진 이성원



Q. (주)팜패스는 어떤 기업인가요.
(주)팜패스는 대한민국 농업인을 위한, 농민들의 고충점을 해결하고 다가올 미래 농업에 최적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설립돼 지금까지 줄곧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경영정보를 분석하며 농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식량자원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농업 플랫폼을 개발해 미래형 선진농업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Q. 농업에 IoT 기술을 접목시킬 생각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부여군 세도라는 토마토 집산지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일반 IT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저에게 처음으로 농업경영관리 소프트웨어 제작을 의뢰해 준 곳이지요. 생산량, 출하량, 매출 등의 데이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싶다는 게 농민들의 주문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한 뒤 몇 년이 지나서 우연히 다른 농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전히 수기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농민 스스로가 1년 수확량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매출을 알아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을 텐데, 기반이 되는 데이터 분석은 커녕 저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었어요. 그 때 농업 스마트화의 시작점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농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직접 농장을 운영하며 농민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테스트과정을 거친 뒤 (주)팜패스를 설립했죠.

- 2011 11월 설립
- 2013 청양군산림조합법인 농업경영정보지원시스템 납품
- 2014 스마트농업 복합환경제어 컨트롤러 제작납품
- 2016 청과시장 조합원 전용 스마트앱 보급
- 2017 스마트팜 환경제어장치 납품



Q. 최근 애그테크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으로도 국민 개개인적으로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050년도에는 세계 인구가 92억 명 정도가 됩니다. 기존의 식량 공급 프로세스로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숫자죠. 집적화와 규모화를 통한 식량 대량생산만이 해결책으로 제시되는데, 이와 같은 프로세스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게 애그테크가 각광받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센서와 통신비 등 애그테크 관련 설비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인프라 구축 비용이 줄어들수록 수익성은 좋아지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애그테크 산업의 투자가치가 높아졌다는 점을 세 번째 요소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식량은 투자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스마트화로 정밀요소가 강화되면서 농업 또한 수익화 모델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먹거리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대전제까지 더해지면서 관심도 자연스레 많아진 거죠.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먹거리에서 원하는 수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선도, 청결 등에 대한 소비자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수요에 상응하기 위해 애그테크 기술 개발이 필요해진 겁니다.

Q. 농업에 IoT를 적용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은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발전할까요?
지금은 농업이 스마트화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가 오겠죠. 기존의 농업 패러다임은 소비자와 생산자는 없고 오직 유통회사들만 있었습니다. 유통업자들 사이에 두고 생산자는 팔고, 소비자는 사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는 농민들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피드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주)팜패스를 비롯한 애그테크 기업들입니다. 이런 과정이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면 우리는 곧 당도, 영양소 등 내 건강과 기호에 알맞은 과일이나 채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Q. 애그테크 시장이 성장하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실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 답은 단순했죠.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었어요. 농민의 언어로 만든 게 아닌 엔지니어의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애그테크 시장의 성공 혹은 실패는 얼마나 농민의 언어를 이해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과 손쉽게 소통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두 번째로는 스마트 농업의 대상을 곡물로도 확장해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애그테크는 곡물이 아닌 과일과 채소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66

애그테크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민의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둘째, 스마트 농업의 대상을 곡물로
확장해나가야 합니다.
농민들과 손쉽게 소통하고
다양한 품목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때,
애그테크 시장은 좀 더 빠르고
탄탄하게 커나갈 수 있습니다.

99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좀 더 다양한 품목에 대해 투자하고 개발해야 관련 시장이 좀 더 빨리, 탄탄하게 커나갈 거라고 봅니다.

Q. (주)한라는 건설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과 애그테크 산업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당연히 있지요. 스마트시티와 연관 지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안정된 먹거리 공급체널을 만들고, 도시에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모두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때문에 큰 틀에서

애그테크 산업에 관심을 갖고 도시사업의 일환으로 바라본다면 건설사가 애그테크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규모경제에 의해서 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함께한다면 더욱 좋겠고요.

Q. 앞으로 (주)팜패스가 추구해나갈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추가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애그테크는 모두가 어우러졌을 때 최고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입니다. 때문에 최근 중견기업부터 벤처기업 7개가 똑같은 자본을 투자해서 하나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업을 만들기 위해 7개 기업 대표들이 1년 이상 회의를 했는데, 오롯이 '원스톱 솔루션'을 만들자는 각오에서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출하예측 서비스플랫폼 론칭을 준비중입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사할린 등 해외 진출 노력도 점차 활발히 해나가고 있는데, 머지않아 저희 (주)팜패스를 해외에서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Q. (주)팜패스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이 되고 있으며, 농업 인력의 고령화, 생산자재 가격상승, 농업경영 마인드 부재 등으로 농업 경쟁력은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주)팜패스는 기후변화와 식량, 에너지 등 자원위기에 대응하여 나라와 생명을 살릴 미래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이며 미래입니다. 이는 수십, 수백 번 반복해도 될 만큼 중요한 이야기죠. 앞으로 (주)팜패스는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Farmpath 주요 솔루션



국내 최초 터치 콘트롤러, 팜내비 FarmNavi

팜내비는 센서에 기반한 자동제어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으로 원격제어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손쉬운 설정과 365일 안정적인 자동화 정밀제어 방식이며, 복합한 경제어시스템의 기능을 갖춘 저가의 보급형 시스템이다.



생산자단체를 위한 농업경영지원시스템 AGRISYS

농업경영지원시스템 '애그리시스'는 출하 관리, 농산물 판매관리, 입출금관리, 시세 정보, 통계 정보, 농자재 판매관리 등 다양한 데이터 중심의 경영관리 프로그램으로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관리가 가능하다.



지하철역 안에서

식물을 키운다

메트로팜 답십리점

삭막할 것만 같은 지하철역에 식물재배농장이 생겼다고? 믿기 힘든 소식에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 농장 ‘메트로팜^{Vertical indoor farm} 답십리점’을 찾았다. 그리고 농장이 얼마만큼 똑똑해질 수 있는지, 미래 농업기술의 시작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글 편집부 사진 김동우

도심 속 미래 농업기술 학습장

5호선 답십리역 5번 출구로 나가기 전, 누구나 한번 씩은 돌아보게 만드는 구 조물이 있다. 빨강·파랑·보라색 화려한 LED 조명이 칸칸마다 달려있는 ‘메트로팜 답십리점’은 서울교통공사와 농업법인 팜에이트가 함께 선보인 지하철역 식물공장 1호점이다.

메트로팜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났으며, 도심에서도 시민들에게 스마트팜을 홍보할 수 있는 대표시설로 꼽힌다. 답십리역 이외에도 앞으로 상도역, 천왕역, 을지로3가역, 충정로역 등에 추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18평 규모로 이뤄져 있는 메트로팜 답십리점은 겉에서 보면 네모난 유리상자 모양이다. 24시간 연중 생산이 가능한 시설인데, 2명의 직원들이 재배환경을



66

메트로팜은
답십리역을 시작으로
상도역, 천왕역, 을지로3가역,
충정로역에서
시민들에게 애그테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99

관리하며 최적의 조건을 유지한다. 1,200여 포기 of 채소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으며 하루 5kg 정도를 수확해 한 달 수확량은 150kg에 달한다.

온도는 21~25℃, 습도는 65~75%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수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특히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미세먼지까지 걱정 없는 ‘초청정 재배시설’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모습이다.

층층이 놓여있는 재배 베드 위쪽에는 각각각색의 LED 전등이 밝게 빛나고 있는데, 이는 식물재배용 LED 전등으로, 광합성에 필요한 청색(450NM), 적색(660NM)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명으로 에너지 절약, 식물 생육 향상 등의 효과를 얻는다. 또 오염되지 않은 물과 빛만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토양오염이나 병충해 걱정을 덜 수 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르지 않고 싱싱한 야채샐러드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곳에서 수확하는 작물을 구입하고 싶다면 <010-6832-0238>번이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팜에이트 메트로팜 답십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소 이야기 in METRO Farm

메트로팜 답십리점 내에는 8가지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버터처럼 부드러운, 버터헤드레터스 영양소가 많아 주로 브런치에 많이 활용되며 샐러드 재료로 많이 쓰이는 인기 채소다. 잎 자체가 도톰하여 쉽게 짓이겨지지 않고 끝 맛이 쓰지 않아 어린이들이 먹기에도 좋다.	 아삭한 식감이 좋은, 카이피라 아삭한 식감을 가진 유럽채소다. 쌈 채소로 주로 먹고, 샌드위치나 샐러드 등에 주로 사용된다. 수제 햄버거에 카이피라를 넣어 먹으면 나만의 시그니처 버거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시원한 맛이 최고인, 프릴리시스 시원한 맛이 매력적인 작물이다.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양상추 대신 샐러드나 햄버거에 사용하면 음식의 맛을 한층 높일 수 있다.	 부드러운 식감의, 스텔릭스 스텔릭스는 식감이 부드러워 육류와 함께 먹으면 좋다. 붉은 빛을 띄는 색이 오묘하고 아름다워 데코레이션용으로도 사용된다.
 쌈싸름한 맛이 매력적인, 이자트릭스 쌈싸름한 상추과의 작물이다. 꼬불꼬불한 모양은 보는 재미도 선사한다. 시원한 맛을 가진 이자트릭스는 육류와 함께 먹어도 좋고, 샐러드와 샌드위치로 먹는 것도 추천한다.	 장미처럼 붉은 빛의, 롤라로사 붉은빛을 띄는 롤라로사는 이탈리아어로 장미처럼 붉다는 의미다. 국화와 식물이며, 색이 고운 이탈리아 상추다. 샐러드로 만들어 먹으면 좋고, 색이 고운 만큼 데코레이션용으로 좋다.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좋은, 파게로 파게로는 뿌리 부분부터 잎을 한 장씩 떼어내어 사용할 수 있어 쉽게 손질이 가능하다. 상추에 비해 부드러우며 연한 식감과 단맛이 좋아 샐러드용, 샌드위치용, 쌈용으로 주로 사용한다.	 샌드위치 맛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뉴햄 버터헤드레터스와 로메인이 합쳐진 모양인 뉴햄은 채소답지 않게 귀여운 모양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양상추 대신 햄버거나 샌드위치에 넣으면 맛을 좋게 만든다.

2050년 인구는 76억 명에서 100억 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애그테크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농촌지역에도 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인력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반가운 소식으로 여겨진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은 애그테크 확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농업 혁신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글 편집부



우리 모두 '애그테크' Ag-Tech

Trend setter's Choice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에 조성되어 있는 딸기 고설 재배 농장

체계화된 미래 농업

서울시, 미래형 도시농업 본격화

서울시는 △시설하우스 △수경재배 △식물공장 △빌딩농장 등을 활용해 미래형 도시농업을 체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우스재배의 특성상 식물 재배에 필수적인 온도관리에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한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이다. 흙 대신 물과 영양분으로 만든 배양액으로 식물을 키우는 방법인 수경재배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려는 시대의 추세와 맞물려 미래의 첨단 농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식물공장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꼽히는데, 시설 내에서 작물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최대의 생산성을 얻는 새로운 농업 방식이다. 빌딩 전체 층에 작물을 재배하여 도시민에서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업, 빌딩농장 또한 서울시에서 연구 중인 '애그테크'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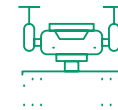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충북 괴산군, 새기술보급 시험사업

괴산군은 유기농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장연면과 청천면 소재 농가 2곳에 '스마트 양액기'와 '환경제어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이를 통해 시설하우스의 온도와 습도, 광량 등 재배환경을 감지하고 관수량 · 양분량, 하우스 제어 등의 자동 조절을 통한 최적의 작물생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환경제어 시스템 도입은 노동력 절감과 생산량 증대로 이어져 농가 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괴산군은 청천면 무농약 토마토 재배농가에 스마트 관비기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설하우스 내부 토양 수분량 감지, 관수량 및 관비량 자동 조절을 통한 정밀한 수분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획기적인 품질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환경제어시스템을 도입한 괴산청결고추의 육묘장



전문교육으로 인식UP

광주시, 교육 통한 산업 확산 주력

광주광역시 관내 시설원에 농업인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적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스마트팜 운영현장 우수사례와 시설원에 양액시스템 ·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의 활용, 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팜 운영기술 등 깊이 있고 현장감 있는 맞춤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차세대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어 나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수경재배하는 애플수박농장

전담인력으로 가속화

전남 고흥군, T/F팀으로 발 빠르게 대응



고흥군은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T/F팀'을 발족, 애그테크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F팀은 순천대학교와 협력해 '지식 기반형 미래농업 기술혁신 연구단지'를 고흥만에 30ha, 4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영농법인,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연계한 기술혁신 집적단지, 앞으로 농업생산, 농기계, 농자재, 정보통신, 에너지, 교육 등에 힘쓸 예정이다. 또 전후방 산업 관련 실증연구, 빅데이터 분석, 전시 · 체험, 신품목을 발굴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청년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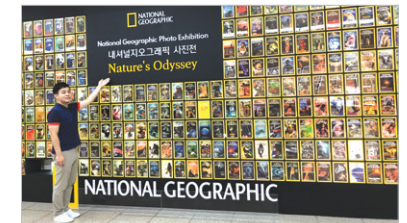
이외에도 융복합 산업을 발전시켜 스마트농업, 스마트농기자재, 스마트축산, 스마트노지 채소 등 전국의 미래 스마트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T/F팀' 발대식

<사계> 기자가 소개하는 이달의 즐길거리

건축사업관리팀 강길현 프로



주말에 날씨가 더워 어떤 실내 활동을 해볼까 고민하던 참에, 오랜만에 예술의전당에서 하고 있는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사진전은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인 지구를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자연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푸른 점, 위대한 대장정, 눈길이 머물다, 우리의 이웃들, 지구의 메시지, 총 5개의 Zone을 차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번 썩 봤을직한 사진도 있고, 배우 공효진씨가 재능 기부한 오디오 가이드도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전

Nature's Odyssey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19. 6. 29 ~ 9. 27

관람 시간

11:00AM ~ 08:00PM ※ 입장마감 시간 07:00PM

관람료

성인(만 19세 ~ 64세) 15,000원 / 학생(초/중/고) 12,000원 / 유아(만 36개월 ~ 7세) 10,000원 / 만 65세 이상 10,000원 / 만 36개월 미만 무료
※ 성인 제외 증빙자료 지참 시 할인 적용



그간 대지를 달구던 열기가
한 줄기 상쾌한 바람에 실려
새로운 계절 너머로 사라져 간다.
곧 드넓은 골프 필드 위로
유리알처럼 청명한 하늘이 드리우면
제주의 환상적인 9월이 열릴 테다.
이날을 기다리며 실력을 키우고 있는
경영기획팀 김광섭 프로가
댄디한 가을 라운딩 룩으로
데뷔 무대에 오를 준비를 마쳤다.

글 편집부 사진 이성원 스타일링 이서연
의상 협찬 현대아울렛 가산점
브랜드 협찬 볼빅(Volvic)

골프 패셔니스타의
데뷔 무대를 완성하는

가을 라운딩 룩 스타일링

그룹기획실 경영기획팀 김광섭 프로

Style.1

무심한 듯 시크한 스타일링의 헤어날 수 없는 매력

‘와, 이 남자! 옷으로 골프를 치는가 보다.’ 뛰어난 패션 핏을 보유한 김광섭 프로가 제일 먼저 선택한 옷은 볼빅브이닷 로고 모티브 배색 카라 티셔츠다. 네이비 컬러 위를 가로지르는 하얀 라인은 무심한 듯 시크하게 스타일링의 멋을 정점으로 끌어올린다. 모두 그에게로 시선이 향할 수밖에 없다.

티셔츠 볼빅브이닷 로고 모티브 배색 카라 티셔츠 15만 9,000원(아울렛가 12만 7,200원)

Style.2

거침없는 기세로 필드에 등장하는
골프 패셔니스타의 비결

실전에서의 성패는 기세가 좌우한 다던가. 골프 역시 다를 바 없다. 어깨를 가볍게 펴고 심호흡으로 불안을 떨쳐 본다. 곧은 자세에 당당한 멋을 더하는 패션은 단연 자신감의 원천이다. 심플한 스트라이프가 이목을 끄는 제에리 레터링 DTP 반팔 티셔츠와 깔끔한 드노세스 팬츠가 손색없는 매칭인 이유다.

티셔츠 제에리 레터링 DTP 반팔 티셔츠 13만 9,000원(아울렛가 8만 3,400원) 팬츠 드노세스 팬츠 21만 9,000원(아울렛가 7만 9,000원)





“골프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한창 재미 붙이고 있던 차여서 그런지
가을 라운딩 룩 스타일링이라는 콘셉트에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최근 주변에서 골프의 인기가 높은 데다
주위에서 강력히 추천하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첫발을 내디뎠답니다.
그런데 정작 빠져들고 보니
장비나 의상 욕심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웃음)
9월 초에 제주 세인트포 CC에서
고대하던 첫 라운딩을 돌 예정이에요.
소위 ‘머리 올린다’고 하는데
성공적으로 잘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tyle.3

강렬한 색감과 대담한 패턴의 조화가
선사하는 시너지

계절의 변화는 신비롭다. 숨 쉬는 공기
마저 뜨겁게 덥히는 여름의 자리를 가
을이 차지하기 무섭게 서늘한 기운이
감돈다. 상체를 부드럽게 감싸 온기를
유지하면서 라인을 살리는 랑게서 카운
티 스웨터의 존재가 새삼 고마운 까닭
이다. 강렬한 색감은 대담한 패턴의 볼
빅브이닷 번개 프린트 골프바지와 함께
라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한다.

스웨터 랑게서 카운티 스웨터 19만 9,000
원(아울렛가 9만 9,500원) 팬츠 볼빅브
이닷 번개 프린트 골프바지 17만 9,000원
(아울렛가 14만 3,200원)



Shopping Guide

현대시티아울렛 가산점 9월 행사

‘추석맞이 아동 7대 브랜드 특집전’ up to 80%

일시 9. 6(금) ~ 9. 12(목)

장소 3F 대행사장

‘제이에스티나’ 신규 오픈 프로모션

기간 ~ 9. 15(일)

장소 1F 본매장

*가산점 단독 상품 및 10만원 이상 구매시
5천원 상품권 증정

‘여성캐주얼 5대 브랜드 FW 상품전’ up to 80%

일시 9. 20(금) ~ 9. 26(목)

장소 3F 대행사장

‘미샤(화장품)’ 신규 오픈 프로모션

기간 ~ 9. 30(월)

장소 1F 본매장

*한라 임직원 확인 시 무료 샘플 증정

Style.4

요란한 원색에서 벗어나 영국 귀족처럼 우아하게

라운딩 룩은 대체로 요란하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도드라져 보
이는 원색과 커다란 무늬는 분명 눈에 띄지만, 자칫 어색한 인
상을 주기 십상이다. 그럴 때, 모던한 감각의 제에리 사선절개
포인트 반팔 티셔츠와 블랙 뒷포켓 프린트 디테일 팬츠의 조화
로 특별한 패션 센스를 뽐내보는 건 어떨까. 영국 귀족처럼 고
상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스타일링은 그립을 잡는 기분마저 새
롭게 바꿀 테다.

티셔츠 제에리 사선절개 포인트 반팔 티셔츠 15만 9,000원(아울
렛가 12만 7,200원) 팬츠 뒷포켓 프린트 디테일 팬츠 17만 9,000
원(아울렛가 10만 7,400원)

건강에 좋고 맛도 좋지만,

냄새는
피하고 싶은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선선했다.

이맘때쯤이 되면 걱정되는 게
하나 생기는데,
바로 아침 출근 길
발을 잘못 디디면
하루 종일 코를 자극하는 은행 냄새다.

구수한 맛이 만족스럽고,
건강에도 참 좋은 은행인데...
어쩌다 이렇게 지독한 냄새를
갖게 된 건지.
알다가도 모를 열매다.
글 박찬일 요리연구가



땀으면 '흔썸나는' 열매

은행나무는 암수가 따로 있다. 가을이 되면 우수수 열매가 떨어진다. 산 같으면 문제없지만, 도시 가로수의 상당수가 은행이라 매년 난감해진다. 특유의 냄새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구린내 비슷한 불쾌감을 동반한다. 이 냄새는 '어미' 은행나무의 경고다.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다. 은행 씨앗을 동물이 먹지 못하도록 취한 조치다. 실제로 독성도 있다. 주황색 외피를 건드리면 좋지 않다. 알맹이만 빼서 먹게 된다. 냄새의 원인은 여러 가지 지방산이다. 은행나무가 얼마나 약성이 강하냐면, 은행나무 근처에는 날벌레도 잘 꼬이지 않는다.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이유도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질소, 아황산가스 같은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나무의 냄새는 어미 은행나무의 경고다.
여러 가지 지방산이 냄새의 원인이데 강한 독성에
날벌레도 잘 꼬이지 않는다.

박찬일 셰프의 간단 요리 Tip



은행버섯 술밥(4인분)

재료 은행 32알, 대추 6개, 표고버섯 4개, 송이버섯(냉동도 무관) 2개, 사골육수 2컵, 쌀 2컵

만드는 법 대추는 씨를 빼고 곱게 채 썬다. 표고버섯도 가늘게 썬다. 송이는 손질하여 편으로 얇게 썬다. 쌀을 씻어 사골육수와 물을 섞어 솥에 안치고, 은행과 위 재료를 위에 얹어서 올려서 밥을 한다. 참기름 간장 양념(버터를 곁들여도 좋다)을 뿌려 먹는다.

요리하면 '맛이 있는' 재료

무엇보다 우리는 은행을 술안주로 많이 먹어왔다. 가을이면 지천으로 열매가 열려서 구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동네 포장마차에서도 은행 구이 안주가 있었다. 은행에 기름을 발라 천천히 숯불에 굽는 게 제일 맛있다. 소금은 다 구운 후에 치는 게 좋다. 그래야 소금 알갱이가 씹히면서 알싸한 은행의 향, 고소한 맛, 즐거운 씹히는 느낌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은행의 고유한 쓴맛 때문에 보통 소금을 많이 치는데, 고혈압 환자는 유의해야 하겠다. 은행은 구이 외에도 나중에는 갈비탕, 갈비찜 같은 요리에도 들어간다. 고소하고 쫄쫄한 식감이 일품인 데다가 건강에도 좋기 때문이다. 은행으로 술밥을 지어도 맛있다. 은행을 넣고 백숙을 해도 좋다. 은행 적당량을 손질한 닭에 넣고 푹 삶아낸다. 찹쌀을 같이 쓰는 게 맛이 더 좋다. 그렇지만 은행은 약성이 강한 반면 그만큼 과용에 주의해야 한다. 어른의 경우 하루 10개 이상을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한다. 어린이는 3개 이하다. 약은 원래 독이기도 하다. 그 양에 의해 독과 약이 나뉜다. 유의해야 한다.

먹으면 '약이 되는' 이파리

은행잎이 떨어질 때가 되면 굽어모으는 이들이 있었다. 그때 소문이 그 은행잎을 제약회사에서 사간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사실이라고 했다. 은행잎 추출물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약으로 출시되었다. 특히 국내산 은행잎의 효능이 탁월하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유럽에서 은행을 약으로 추출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국내 제약회사에도 은행과 관련된 약을 생산한다.

은행잎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것은 특유의 징콜라이드 성분 덕이다. 살균 효과와 함께 혈액 응고 방지 작용을 한다. 당연히 혈관의 경화를 줄여준다. 그렇지만 잎뿐 아니라 은행 열매에도 그 효과가 내장되어 있다. 심장, 혈관질환 환자는 기본적으로 병원의 처방과 치료를 따라야 하고 보조적으로 이런 음식을 먹어서 치료를 도울 수 있다. 은행=혈관의 공식 외에도 호흡기에도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허파와 기관지를 건강하게 한다. 은행을 말려서 차로 만들어 마시기도 하고, 갈아서 꿀 등을 타서 먹기도 한다. 보통 '진해거담제'라는 말을 약국에서 들어보았을 것이다. 진해는 기침을 진정시킨다는 뜻이고 거담은 가래 배출의 의미다. 흥미로운 건 은행이 생산되는 가을은 호흡기도 건조해지고 병이 나기 쉬운 계절이라는 점이다. 딱 알맞을 때 은행이 나온다. 은행은 질 좋은 진해거담제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런 민간요법은 용량과 용법 등에서 검증이 약하거나 신뢰도가 낮다. 가능하면 한의사와 약사 등의 조언을 얻어서 복용하기 바란다.

은행은 본디 약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 야뇨증에 쓸 수 있다. 은행을 '노인의 친구'라고 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노인이 되면 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배뇨기 이상이 발생하게 마련인데 은행이 이런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은행에는 방광을 이완시키는 성분이 있다. 놀랍게도 현대의학에서 쓰는 야뇨증과 빈뇨증 같은 배뇨장애에 쓰는 약도 방광 이완제가 들어간다. 현대의학은 은행의 치매 예방 성분에도 주목하고 있다. 은행잎에 들어 있는 징콜라이드 외에도 진놀, 프라보놀 등의 성분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은행의 능력이다.

10년, 이들이 함께한 시간

S사업팀 박해찬 프로 가족

평생, 앞으로 행복할 나날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흰칠한 키와 다채로운 표정으로 모델 포스를 뽐내는 아빠 S사업팀 박해찬 프로, 어떤 포즈도 밝은 미소와 함께 척척 해내는 딸 하연이. 이 정도면 준프로, 아니 프로 모델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그 사이에서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해 내내 애를 먹은 엄마 윤영은 씨. 덕분에 촬영장에 웃음이 터진다. 결혼 10주년을 기념하여 카메라 앞에 선 이들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포착했다.

글 편집부 사진 이성원



활력 넘치는 딸 하연이

스튜디오에 들어선 하연이가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촬영장 안을 정신 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한다. 이날의 촬영 콘셉트가 적힌 인쇄물을 보고 있는 엄마, 아빠 곁으로 와 호기심을 보이더니 이내 질문 공세를 편다. “꼭 이거 입어야 해? 다른 옷 입으면 안 돼?”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하연이는 성격이 활발해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다. “꼭 남자아이 같죠? 아이가 노는 걸 좋아하고 체력도 좋아서 스키, 스케이트, 인라인, 수영 할 것 없이 운동을 많이 시켰어요.” 영은 씨는 하연이의 성격을 소개하는 동안 하연이가 저쪽에서 “스케이트 좋아” 하고 외친다. 어디서든 잘 적응할 것만 같은 하연이도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땐 힘들어했었다. “학교는 자율성이 없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눈치가 빠삭해서 금세 선생님에게 믿음직한 학생으로 인식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서 안심했죠.” 이 아이, 보통이 아니다.

반대로 하연이에게 엄마, 아빠는 어떤 부모일까. “아빠는 심술이, 엄마는 짜증이. 그리고 둘 다 장난꾸러기예요.” 엄마는 “뒹야, 왜 내가 짜증이야?” 하고 볼멘소리를 한다. 전혀 예상치 못한 하연이의 답변에 다들 폭소가 터진다.

무뎀하고 소탈한 부부의 연애사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이들 가족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우아한 가족으로 변신한 그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자태를 한껏 뽐냈다. 세미 정장 스타일로 갖춰 입은 박해찬 프로와 윤영은 씨는 신혼 때로 돌아간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결혼 10년차 부부의 신혼, 연애시절은 어땠는지 문득 궁금해진다.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아내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인도에 교환 학생으로 가 있었는데 나중에 학교에 돌아와 만나게 됐어요. 후배들 밥 사주는 자리에서 처음 만났고요. 실은 둘 다 사진으로 먼저 본 상태였는데 학회 신고식 사진에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술을 잘 먹겠구나 싶었죠. 그 이후에 자주 만나고 학회 활동을 하면서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요. 학교를 1년간 같이 다녔는데 그동안 평생 싸울 걸 다 싸운 거 같아요. 그 기간을 잘 극복해서인지 7년 동안 사귀고 결혼에 골인했죠. 올해로 벌써 결혼 10주년을 맞았네요. 그동안 하연이도 생겼고, 좀 더 단단한 가족이 된 느낌입니다.”



10년...
길쭉 길쭉한 키
시원시원한 성격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
멋진 부모로 성장한 시간



66

결혼하고
늘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 왔어요.
항상 지금이 정점이라 생각하고요.
우리 가족 모두 아프지 않고
소소한 행복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편 박해찬 프로
99

66

우리 가족이
늘 변함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게 고맙게 느껴져요.
앞으로도 이대로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요.
아내 윤영은 씨
99



66

엄마, 아빠가
저랑 잘 놀아주면
좋겠어요.
착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딸 박하연
99

박해찬 프로의 말에 질세라 윤영은 씨가 이야기를 덧 붙인다. “인도에서 지낸 탓에 마르고 머리도 못 자른 모습의 남편 사진을 한 커뮤니티에서 봤어요. 그 사진을 보고는 나와는 다른 세계 사람이네, 만날 일 없겠네 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밥을 사준다고 해서 나갔어요. 그때쯤에는 머리로 자르고 어느 정도 단정한 차림을 하고 있어서 사람처럼 보이네, 멀쩡하네 하고 생각했어요. 기대치가 아예 없었으니깐 괜찮아 보였던 거죠.”

연애 초기의 설렘이나 낭만이 묻어난 이야기를 듣기는 어렵겠다 싶다. 박해찬 프로가 분위기를 전환할 만한 한 가지 에피소드를 꺼냈다. “만난 지 100일이 되던 즈음에 제가 캐나다 연수를 가게 됐어요. 사귀지 얼마 되지 않아 가게 된 거라 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어요.”

가수 유영석 씨가 만든 그룹 화이트가 1994년에 발표한 곡 <말할 걸 그랬지> 가사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너의 생일 파티 때엔 밤새 들떠 포장한 스물세 가지의 선물, 네게 가득 안겨 주고 싶었는데.” 여기에 착안한 박해찬 프로가 100일 기념 선물 이벤트를 준비한 것. “100가지 선물을 준비해주고 싶었어요. 선물은 별 것 없었어요. 책, 약, 학용품, 술, 향수, 음식 등등 온갖 선물을 준비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붙여 선물을 줬어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이벤트를 안 했어요.(웃음)”

결혼 10주년이라고 해서 부부에게 특별한 건 없다. 소탈하게 지내길 좋아하는 부부답게 10주년도 그냥 넘어가려 했을 정도. “저는 편안하고 무던하게 지내는 걸 좋아해요. 아내도 기념일 챙기는 걸 안 좋아하고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예요. 10주년이라 해서 무슨 이벤트를 할 생각도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런 촬영 기회가 주어져서 가족사진이나 찍어보자 하고 겸사겸사 하게 된 거죠.”

늘 이대로, 변함없이 지내길

수더분하게 말하는 듯해 보여도 박해찬 프로는 아내에게 늘 고마운 마음뿐이다. 윤영은 씨는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 이후 회사를 그만두었다. 완벽



주의자 성향의 영은 씨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처음에는 외벌이에 대한 걱정으로 아내의 퇴사를 만류했지만 회사를 그만둔 뒤 아내가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영은 씨의 마음이 편해지자 곧 아이가 생겼고 생활도 안정됐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가 좋아하니깐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하연이를 너무 힘들게 낳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오랜 시간 산통을 하다가 결국 수술을 했거든요. 이후로도 모유가 안 나와서 고생했고요. 그걸 견뎌준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하는 와중에 영은 씨는 공부를 하며 다른 일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방통대에서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미술심리 상담 쪽으로 발을 들이게 된 것이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보기 좋아요. 예전과는 다르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체력이 허락하는 선에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진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연이는 다양한 포즈를 원하는 사진작가의 요청에 완벽하게 응할 줄 알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소 지친 기색을 보이기도 했지만 “하연아, 웃어보자” 하는 주문에 바로 방긋 웃어 보여 지켜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엄마, 치즈 케이크 먹어, 엄마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야!” 촬영이 끝나고 소품으로 준비한 케이크와 과자를 먹을 수 있게 되자 엄마부터 찾는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촬영장의 유쾌한 기운을 품은 채 세 식구는 스튜디오를 나섰다.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정점이라 생각한다는 박해찬 프로의 말처럼 늘 이대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시간과 자연이 빛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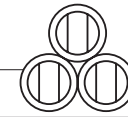
최고의 액체,

Wine



와인은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술이다.
일부 학자들은 원숭이나 원시인도 포도주를 담갔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포도를 으깨어 한구석에 놓아두기만 해도 껍질에 묻은 자연 효소로 인해 알코올 발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 식량을 찾지 못해 굶주린 원시인이 어느 구석에 처박아둔 포도가 생각났다. 부글부글 상한 것처럼 보이는 액체가 됐지만 너무 배가 고파 홀홀 마셔버렸다. 그런데, 어라? 세상이 달라 보인다! 온갖 시름을 덜어주는 기분 좋은 음료는 이렇게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글 민혜련 파리 문화 예술 전문가
출처 『퇴근길 인문학 수업 : 전진』

인간의 개입 없이 알코올이 된 유일한 술



술은 당분, 정확히 말하면 포도당이 효모의 작용으로 인해 알코올로 변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술에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 당화 과정은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기하게 포도는 식물 중 유일하게 다른 물질의 도움 없이 자연 효모와의 접촉만으로도 쉽게 발효가 일어난다. 천연 포도당과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에는 수많은 종류의 포도 품종이 있지만 국내에서 흔한 캠벨, 거봉 등의 품종으로는 와인을 만들기 어렵다. 포도당 함유량이 적어 와인 맛을 최적화하는 12~13퍼센트까지 알코올을 추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와인을 만드는 품종은 따로 있다. 카베르네 쇼비뇽, 메를로, 피노누아, 샤르도네 등 우리 귀에도 익숙한 품종이 바로 양조용 포도의 대표다. 이 품종들은 포도당 함유량이 많아 발효만 하면 알코올 도수가 훌쩍 올라가며, 햇볕이 뜨거워 당도가 높은 신대륙이나 지중해 지역에서는 14~15퍼센트까지 알코올 함유량이 훌쩍 올라간다.

사실 와인이 다른 술과 달리 명품의 위치에 오른 이유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양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도수 높은 위스키나 코냑처럼 수십 년간 장기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일반 소비자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와인은 보관 기간이 4~5년으로 그리 길지 않다) 특히 1년에 꼭 한 번 그해의 명찰을 달고 소량 생산된다는 것은 곧 희소성을 말한다. '희소성'과 '단 한 번'이라는 단어는 돈 많은 호사가의 수집 욕구를 자극한다. 또 과거 귀족들이 심취했던 음료답게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 샴페인 등 각 와인을 마시는 잔과 와인오프너 등 주변 액세서리도 스토리텔링과 함께 발전했다는 게 오늘날 와인의 영광을 만들어냈다.



66
포도는 식물 중 유일하게 다른 물질의 도움 없이 자연 효모와의 접촉만으로도 쉽게 발효가 일어난다. 천연 포도당과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99

와인 알고 마시면 더 맛있다



하나,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 로제와인은 원료와 발효시간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레드와인은 적포도의 껍질과 알맹이, 씨까지 모두 으갠 후에 발효시켜 만드는 와인으로, 포도껍질에 있는 안토시아닌 색소와 짙은맛을 가진 타닌 성분으로 완성된다. 반면 화이트와인의 주원료는 청포도로, 포도의 씨와 껍질을 미리 제거해서 만든다. 레드와인보다 짙은맛이 적고 상큼한 맛이 특징이다. 로제와인은 밝은 장미꽃 색이 특징인데, 레드와인처럼 포도껍질과 함께 발효시키되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발효한다. 때문에 보존 기간이 짧아 금방 마셔야 한다.

둘, 잔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진다.

레드와인 잔으로는 부르그뉴 레드와인 글라스와 보르도 레드와인 글라스를 꼽을 수 있다. 부르그뉴 레드와인 글라스는 짧고 둥근 모양인데, 면적이 넓은 보울 덕분에 공기와 접촉하는 와인의 면적이 넓어져서 향을 더욱 풍부하게 맡을 수 있다. 보르도 레드와인 글라스는 타닌이 강한 맛의 와인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타닌의 텁텁함을 줄이고 과일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글라스의 경사각을 완만하게 조정했다.

화이트 와인의 경우엔 기본적으로 타닌이 적기 때문에 레드와인 잔과 같이 크기가 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화이트와인 전용 잔은 레드와인 잔보다 작은 것이 특징이며 차갑게 마시는 화이트 와인의 특성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용량을 작게 만든다. 이 중에서 특히 스파클링 와인 글라스는 기다란 모양이다. 입구가 좁기 때문에 스파클링 와인의 탄산을 오래 보존할 수 있다. 또 잔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스파클링 와인의 기포를 감상할 수 있다.

GPS의 위치는 시계가 결정한다

현대 사회는 시계와 함께 돌아간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
버스, 기차, 비행기 모두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
약속 장소에 시간 맞춰 가야할 때만
시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제는 지구 반대편 미국이나
유럽의 거래처 사람과도
실시간 화상통화를 하기 위해
시간을 맞춘다.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같은 시계에 묶여 생활하고 있다.

글 유재준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GPS의 핵심은 시간.
모든 시계는 똑같이 움직여야 한다

지구상 어디에서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라고 한다. GPS의 핵심은 시간이다. 인공위성에 탑재된 원자시계는 모두 같은 시간에 맞춰져 있고 지상의 국제협정시와도 동기화되어 있다. 정해진 원 궤도를 일정하게 공전하는 인공위성은 GPS 신호에 자신의 위치와 시간을 담아 전자기파 형태로 지상에 보낸다. 전자기파는 빛과 속력이 같고 진공 상태에서 항상 일정한 속력으로 전파된다. 따라서 GPS 신호의 발신 시간과 수신 시간을 알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번 인공위성의 위치와 발신 시간이 담긴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GPS 수신기가 받은 수신 시간이 정해지면, 1번 인공위성과 수신기의 거리는 발신-수신 시간의 차이에 빛의 속력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 2번 인공위성의 위치와 시간을 수신하면 2번 위성과 수신기의 거리를 알게 되고, 마찬가지로 3번 위성과의 거리도 정확히 알 수 있다.

만일 인공위성의 시간과 GPS 수신기의 시간이 모두 정확히 동기화 되어 있고, GPS 신호가 주변 환경의 방해 없이 정확히 도달했다면 1,2,3번 위성에서 전달된 3개의 신호만으로도 충분히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GPS 수신기의 시간이 정확히 동기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공위성으로부터 GPS 신호를 받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개의 GPS 위성에서 지속적으로 보내는 신호를 받은 지상의 GPS 수신기는 자신의 위치와 더불어 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움직이는 시계가 느려진다면,
인공위성의 시계도 느려지는 걸까?

지상 2만 킬로미터 고도에서 공전 주기 12시간으로 움직이는 GPS 위성의 속력은 초속 3,900미터에 달한다. 지표면의 GPS 수신기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GPS 위성에 있는 시계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 계산해보면 하루에 약 100만 분의 7초씩 느려진다. 만일 GPS 시계의 시간을 그대로 쓴다면 매일 2.1킬로미터씩 오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그런데 사실 인공위성의 시간은 더 빠르게 움직인다. 그것도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예측한 100만 분의 7초가 아니고 100만 분의 38초나 빨리 가고 있다. 그 이유는 빠른 공전에 의한 속력 효과보다 중력에 의한 감속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력에 의해 시간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66
GPS 신호의 발신 시간과
수신 시간을 알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더불어 여러 개의 GPS 위성에서
신호를 받은 수신기는
자신의 위치와 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99



중력이 강하면 시간은 느려지고,
중력이 약하면 시간은 빨라진다

중력과 시간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있다. 중력에 의해 시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기 위해, 가속하는 로켓 안에 있는 두 개의 시계를 비교해 보자. 똑같은 원자시계를 로켓의 앞쪽에 시계A, 그리고 뒤쪽에 시계B를 매달아 놓고, 매 초마다 다른 쪽에 있는 시계를 향해 불빛 신호를 보내도록 만든다. 이제 로켓을 시계A방향으로 가속한다고 하자. 시계A에서 신호를 보내는 순간 로켓의 속력과 같이 움직이는 관성계에서 보면, 시계B를 향해 움직이는 신호는 빛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고, 동시에 시계B는 가속 운동을 하는 로켓과 더불어 A에 접근하게 된다. 시계B의 입장에서는 시계A의 1초가 더 짧게 측정되고, 반대로 시계A에서 측정된 시계B의 1초는 더 길어진다. 가속하는 로켓의 앞쪽 시계가 뒤쪽 시계보다 빨리 간다는 것은 중력 방향 쪽의 시계가 더 느리게 간다는 것과 같다. 중력에 의해 시간이 느려진다는 뜻이다.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효과를 계산해 보면, GPS 인공위성이 위치한 하늘 위 중력이 지표면의 중력보다 작아서 하루에 약 100만 분의 45초 정도 빨라진다. 특수상대성 효과와 함께 보면 매일 100만 분의 38초의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실제로 위성의 원자시계의 시간 간격은 지상에서 발사하기 전에 매일 100만 분의 38초씩 느리게 가도록 맞추어 궤도에 올린다.

호주에서 온
편지

호주 속의

또 다른 호주

‘캥거루 아일랜드’와 ‘애들레이드’

캥거루 아일랜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애들레이드에서 페리를 타고 캥거루 아일랜드로 넘어왔습니다. 이 섬에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캥거루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잡지에선가 선한 얼굴로 낯선 이방인을 멀뚱멀뚱하게 바라보는 순진한 눈빛의 캥거루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 여행을 간다면 그 눈빛 앞에 서고 싶었고, 마침 애들레이드로 오게 됐고, 애들레이드에서 캥거루 아일랜드가 1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저는 주저 없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글·사진 최갑수(시인·여행작가)



플린더스 체이스 국립공원의 리마커블 락



Dear. 한라인

애들레이드는 우리에게 다소 낯선 곳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캐세이퍼시픽을 이용해

홍콩을 거쳐 애들레이드공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캥거루 아일랜드는 애들레이드에서 배로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시링크 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있어요.

캥거루 아일랜드는 넓은 섬입니다.

사나흘 정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돌아보시길 권해드려요.

물론 일주일 정도 넉넉하게 잡아도 됩니다.

캥거루 섬에는 아담한 호텔과 산장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머큐어캥거루아일랜드룻지랍니다.

항구와 킹스코트공항에서 30분 거리에요.

-

From. 최갑수



캥거루 아일랜드로 들어오는 페리 안에서 이 섬에 대

한 간략한 정보가 담긴 브로슈어를 읽었습니다. 캥거

루 아일랜드는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면적이

4,500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설명해 놓았더군요.

하지만 인구는 5,000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섬의 별명이 '호주의 갈라파고스'라고 자랑

해 놓았습니다. 이 섬에는 캥거루와 코알라, 왈라비

등 다양한 종류의 호주 토종 야생동물이 많이 살고 있

습니다. 이 외에도 21개의 자연 보존 지역과 국립공원

이 자리 잡고 있으며 30여 종의 동물과 250여 종의

새, 90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고요. 바다사자와

펠리컨을 비롯해 뉴질랜드 물개, 야생 코알라, 검은

앵무새 등 다양한 동물이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60

종은 오직 캥거루 섬에서만 볼 수 있는 종이라고 합니

다. 섬은 1802년 영국의 탐험가 매튜 플린더즈가 처

음 발견했는데요, 탐험대는 곤봉으로 캥거루 몇 마리

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이 섬을 '캥거루 아일랜드'라

이름 붙였다고 하네요. 병주고 약주고... 조금은 잔인

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 캥거루 아일랜드에는
유독 쪽 뽕은 도로들이 많다.

2 캥거루 아일랜드에서
한가로이 노닐고 있는 캥거루

3 실 베이(Seal Bay)는
호주 바다사자의 고향으로
불린다.

고요로 가득한 외딴 섬

섬에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길을

한참 동안 달려도 마을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사람들

은 레스토랑에 모여 와인을 마시거나 집에서 라디오

를 듣습니다. 길이 바다에 가까워지면 파도소리가 들

립니다. 차창을 활짝 열면 밀물처럼 파도소리가 밀려

와 귓전을 적시죠. 매튜 플린더즈보다 제가 이 섬을

먼저 발견했다면 전 이 섬을 고요의 섬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한국은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겠네요. 파도처럼 온갖

생각이 밀려갔다가 밀려옵니다. 숙소의 침대에 누워

파도소리를 들으며 존 버거의 <a가 x에게>를 읽습니

다. 책을 읽기 가장 좋은 장소는 기차 안이나 낯선 호

텔의 침대 위라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을 만져보고 싶어 하는 내 손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너무 오래 당신을 만져 보지 못해 이젠 쓸모

없이 되어버린 손처럼 보이네요."라는 구절에 밀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고요를 깨트릴까봐 조

용히 책장을 덮었습니다.

바다사자의 고향

오늘은 '실 베이'(Seal Bay)에 다녀왔습니다. 호주 바

다사자의 고향으로 불립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야

생 상태의 바다사자를 가까이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곳이죠. 수백 마리 바다사자가 바로 눈 앞 해변에서

늘어져 누워 있는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헤엄치다

가, 혹은 모래밭을 뒹굴거리다가 잠이 든 바다사자는

쓰다듬고 싶을 만큼 귀엽지만 이 곳 역시 '룰'이 적용

되죠. 항상 국립공원 가이드와 함께 있어야 하며 절대

로 바다사자 근처로 접근해서는 안된답니다. 사람들

의 무분별한 포획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사자들을 지키는 방법이죠.

해변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수평선이 명주실처

럼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바다사자를 바라보면서

누구라도 이곳을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해변을 어느 누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

다사자들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더군요. '이 섬은 누

구나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인생은 즐겨야 하는 거죠

속소로 돌아가는 길, 칵테일 원료로 중요하게 쓰이는
진을 직접 만들어 마시는 가게에 잠깐 들렀습니다. 주
인은 아주 친절하게 진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
다. 스무 가지가 넘는 재료를 각자 자기의 취향에 맞
게 섞어 만들어 마십니다. 저는 아주 쓰고 신 맛을 원
해서 재료를 좀 이상한 비율로 섞었습니다. 제가 만든
진을 맛 본 주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베리. 디피컬
트.” 저는 그녀를 보고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마도 당신이 맛보았더라도 그런 웃음을 지었겠지요.
직접 만든 진은 유리병에 잘 담아 코르크 마개로 꼭꼭
막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친구들과 함께 마실
겁니다. 저는 햇빛이 잘 드는 잔디밭에 앉아 주인이
만든 수준급의 진을 마시고 있습니다. 달콤하고 시큼
하고 매콤합니다. 아주 향기롭고요. 언젠가 누군가 내
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물거품이에요. 그러
니까 즐겨야죠.” 진을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습니다.
남호주의 찬란한 햇살이 눈꺼풀 위에 어둡습니다.

신념처럼 굳건한 풍경

오늘은 플린더즈 체이스 국립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캥거루 아일랜드를 찾은 여행객들이 제일 먼저 달려

- 1 플린더즈 체이스 국립공원에는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나무데크 탐방로가 길게 이어져 있다.
- 2 성채처럼 서 있는 리마커블 락은 플린더즈 체이스 국립공원의 또 다른 볼거리다.
- 3 4 영국 정부가 조성한 도시인 애들레이드의 대표 거리 '런들 스트리트'에는 여전히 영국 특유의 클래식한 분위기가 많이 남아있다.
- 5 펜폴즈 와이너리의 소믈리에
- 6 캥거루 아일랜드에서는 꼭 싱싱한 해산물 요리를 맛봐야 한다.

가는 곳이기도 하죠. 야생동물의 낙원으로 불리는 곳
으로 캥거루, 코알라, 왈라비 등의 동물이 살고 있습
니다. 국립공원을 탐방하며 야생 동물을 만나는 일은
감동적이고 가슴 짙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
울여야 하죠. 동물의 생태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큰소리로 떠들어서도 안되고 무
턱대고 만져서도, 가이드의 허락이나 안내 없이 가까
이 가셔도 안됩니다. 지정된 탐방로를 따라가며 야생
동물을 관찰하는 것도 탐방 매너죠.
플린더즈 체이스 국립공원의 또 다른 볼거리는 '리마
커블 락'Remarkable Rock'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커다란
투구나 코끼리처럼 보이기도 하는 바위가 바닷가 화
강암 암반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만
들어놓은 설치작품처럼 보이는 이 바위는 오랜 세월
거센 파도와 바람이 깎아 만든 것입니다. 석양 무렵에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데, 호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토 스팟 가운데 한 곳으로 손꼽히죠. 바위는 고요의
풍경 그 자체입니다. 오랜 세월 고요와 침묵에 단련된
육체로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바위가 두르고 있는 갑옷처럼 단단한 '고요'. 사람들은
갑각류 같은 그 고요 앞에서 우뚝 멈추고 오래도록 바
위를 바라보곤 합니다.

사랑스러운 도시 애들레이드

남호주 여행의 마지막 일정인 애들레이드에 도착했
습니다. 호주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영국의 영향을 유
난히 많이 받은 도시예요. 1836년에 애들레이드 초대
총독인 힌드마시를 따라 온 270여 명의 영국 이민자
가 정착하면서 애들레이드의 역사가 시작됐죠.
애들레이드는 영국 정부가 자유 이민을 목적으로 만
들었는데, 도시가 커져도 재정비할 필요없게 조성한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애들레이드 지도를 보면 도
시가 직사각형으로 재단되어 있답니다. 도시는 토런
스강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는데, 이 강변을 따라 산책
로가 이어집니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감상하는 애들레이드의 풍경
은 평화롭고 차분합니다. 젊은 연인들은 데이트를 즐
기고, 잔디밭에 누워 책을 읽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여유가 넘칩니다.

선물을 산다는 것

런들 스트리트를 건너 초콜릿 가게인 '헤이그 초콜릿'
을 발견했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수제 초콜릿
가게죠. 한국의 지인들에게 나눠 줄 초콜릿을 잔뜩 사
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산다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초콜릿을 사자마자 펜폴즈 와이너리로 달려갔습니다.
애들레이드 시내에서 자동차로 15분만 가면 됩니
다. 펜폴즈는 호주의 국보급 와인이예요. 와인 전문지
인 '와인 스펙테이터'로부터 그랜지 1955년 빈티지가
'세기의 와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와인평론가 로
버트 파커가 "그랜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풍부
하고 응집력이 뛰어난 드라이 테이블 와인"이라고 극
찬하기도 했죠.
와인을 마시며 문득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을 알고
나서부터,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뒤로 좋은 풍경 앞
에서 설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당신이
생각납니다. 당신을 아주 오래 전부터 알았던 것 같
습니다. 이전 생에도 알았고, 그 앞의 생에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여행에는 꼭 당신과 함께 하길 소
망해봅니다.



Travel Tip

애들레이드 보타닉 가든 레스토랑(www.botanicgardensrestaurant.com.au)은 보타닉 가든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와인과 함께 다양한 호주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다렌버그 와
인(www.darenberg.com.au)에서는 남호주 와인 시음 뿐만 아니라 직접 블랜딩 해보는 프로
그램도 운영합니다. 펜폴즈 맥길 에스테이트(www.penfolds.com)는 미리 예약하면 편하
는 것도 알아두세요.



Look Into



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짓다

현대해상천안사옥 현장

사옥(社屋).
회사가 위치한 건물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엔 기업의 역사와 미래, 직원들의 희망이 모두 담겨있다.
(주)한라는 수많은 사옥 건설현장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기업들의 철학과 꿈을 지어왔다.
그리고 29개월이라는 기간을 공들인 결과
지난 8월 31일,
또 한 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담아낼 건축물을 완성했다.
글 편집부 사진 이성원



왼쪽부터 문경식 프로, 최성규 프로, 오현지 경리보, 김영하 소장, 김응필 프로, 구정명 프로, 위태봉 프로, 김창환 프로, 김학래 주니어 프로, 홍근수 프로

천안아산의 정점을 찍다

‘예쁜 애 옆에 예쁜 애’가 있듯이 ‘멋진 건물 옆에 멋진 건물’이 들어섰다.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옆에 들어서는 현대해상천안사옥 얘기다. 두 건물 모두 (췌)한라에서 시공한 역작이다. 천안아산역은 1996년 착공해 2004년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이 역을 중심으로 여러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다. 특히 서울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천안아산 일대의 가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바통은 이제 스마트 오피스 지구의 랜드마크, 현대해상천안사옥이 이어받았다.

지하 6층, 지상 14층, 연면적 29,234.16㎡(약 8,858.83평)의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해상천안사옥은 건물 전면 창과 중간 중간 배치되어 있는 대리석 벽면이 웅장함을 자아낸다. 현대해상은 천안 일대에 흩어져 있던 계열사와 일부 협력사를 한 지붕 아래 모으고, 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췌)한라 역시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천안에 (췌)한라가 세운 건물과 아파트가 많습니다. 가깝게는 천안아산역도 우리 회사가 토목과 건축을 담당했죠. 천안시 용곡동, 신방동에도 한라비발디 아파트가 들어서있습니다.”

공사를 총괄한 김영하 소장은 “공사를 진행할 때 지자체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미 여러 번 관계해 본 천안이라서 조금은 수월했다”고 전했다.



능력으로 신뢰를 얻다

이번 현대해상천안사옥 공사현장은 (췌)한라의 뛰어난 시공 능력을 대외적으로 각인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

2017년 4월 1일에 착공한 현대해상천안사옥은 지하 6층(30m)까지 터파기 공사를 해야 했다. 특히 30m 중 28m가 암질로 형성돼 있어 결코 쉽지않은 공사였다. 때문에 9개월 간 발파작업을 해 땅을 파내려가는 등 1년 동안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기반을 탄탄히 했다. 수차례 진행되는 발파작업으로 인한 민원은 김영하 소장의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김 소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발파작업 시에는 지자체와 주변의 이해관계자들

과 지속적인 회의를 열어 이해를 구하고, 수시로 안전성을 검증했습니다. 모두가 안심할 때까지 반복해 설명했죠.” 건물 외벽에는 ‘오픈조인트’ 공법을 사용했다. 이는 건물 외벽에 있는 창과 돌 사이를 실리콘으로 마감하지 않고 노출된 상태로 두는 것으로, 전국에 있는 현대해상사옥에 공통적으로 적용돼 있다. ‘오픈조인트’ 공법은 시공 후 디자인이 미려할 뿐만 아니라 추후 보수나 오염이 없어 최근 많은 발주처에서 선호하는 공법이다. 다만 차수 계획, 배수 계획, 하드웨어 공법 결정까지 꼼꼼하게 검토해 반영해야 다른 하자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줄눈과 줄눈 사이에 별도의 마감재가 없기 때문에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내부에 막을 설치하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일반 공사보다 비용과 시간, 시공능력이 배로 드는 까다로운 공법이지만 김영하 소장을 비롯한 현대해상천안사옥 공사현장 직원들의 경험과 열정으로 무사히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예술작품을 시공하다

한 기업의 사옥을 건설하는 일은 막중한 책임감이 뒤따른다. 또 근무하는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기대감이나 요구도 많아 쉽지 않은 공사다. 이런 현장은 고객을 대하는 다년간의 경험이 유독 필요한 곳이다. 이에 현대해상천안사옥 공사현장에서는 발주처의 만족을 얻기 위해 2017년 착공 후 매 주 화요일마다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대형 미술작품이 부착돼 있는 1층 로비는 높은 천장과와 부드러운 자연광을 들이는 대형 채광창이 방문객의 탄성을 자아낸다. 바닥과 벽, 안내 데스크 뒤편에는 각각 다른 돌을 사용해 현대해상 고유의 특색을 만들었다. 김영하 소장은 “전국에 있는 현대해상 사옥은 비슷한 외관을 지니고 있다”며 “건물 외벽에 사용된 돌과 1층 로비에 사용된 대리석 자체 하나하나가 모두 발주처와 우리가 머칠을 고민해 선택하고 시공한 예술작품”이라고 말했다.

Interview.



김영하 소장

한 기업의 사옥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기업의 역사와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항상 “우리 회사의 사옥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일하라”고 주문합니다.

광화문 본사를 비롯해 인천 부평, 부산 등 현대해상사옥들의 외관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를 진행하기 전, 현장직원들과 함께 전국에 있는 현대해상사옥을 돌아다니면서 스터디를 했어요. 덕분에 직원들 모두가 현장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죠. 이번 공사의 복병은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여름은 특히나 더웠는데 7월과 8월, 2개월 간 40일 넘게 폭염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죠. 때문에 당시에 전 국가적으로 건설현장 공사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계속됐습니다. 이럴 경우 일에 능력이 오르지 않아 공정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게 ‘시간’인데, 저의 주문을 성실히 수행했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한 번에 끝내는 건 꼭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간은 곧 돈이고, 건설현장에서는 품질과도 이어지니까요.

저는 첫 직장이 (췌)한라였고 26년 동안 수많은 현장을 뛰었습니다. 어느덧 선배보다 후배가 더 많은 위치가 됐네요. 앞으로도 ‘잔소리와 조언을 구분하는 선배’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건강관리만 잘해주길 바랍니다. 일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요.(웃음)

66
우리 회사 건물을
짓는 마음으로
한 층 한 층 쌓아올린 29개월.
그 시간은
안전하고 편안한 건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99



가치를 같이 짓다,

Build Together!



왼쪽부터 오현지 경리보, 김영하 소장, 홍근수 프로, 김학래 주니어 프로



현대해상천안사옥을
멋지게 완공한 주역들을 만나
29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친
소감을 들었다.
또 (주)한라의 사옥을 내 손으로 짓는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짓고 싶은지 물었다.

홍근수 프로 (관리팀)

준공되고 나니, 시원~섭섭하네요. 훗날 (주)한라의 사옥에 미약하나마 제 힘을 보태게 된다면 '대화가 많은 공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주제로 공간을 꾸미고 싶습니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료들이잖아요? 더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발휘될 수 있는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김학래 주니어 프로 (관리팀)

신입사원으로서 처음 온 현장이라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많은 걸 배우고 익힌 이곳, 첫 현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우리 회사의 사옥을 짓는다면 세련되고 멋진, 튼튼한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의 얼굴, 자랑일테니까요.

오현지 경리보 (관리팀)

아산에 사는 시민으로서 앞으로 이 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대해상천안사옥을 볼 때마다 뿌듯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뿌듯함으로 보서는 (주)한라 사옥 건설현장에 참여할 경우엔 돌과 나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을 것 같아요. 내 것, 내 자산이니까요.

구정명 프로 (공사팀)

준공 소감이요? 아주 지긋지긋했는데 끝나서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을 거 같습니다(웃음). 애정이 큰 현장 일수록 고민되고 머리 아픈 일이 많기 때문에 애증의 현장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의 회사 사옥도 이런데, (주)한라 사옥을 건설할 땐 오죽할까요.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서 잘! 멋있게! 안전하게 지을 겁니다.

김창환 프로 (공사팀)

섭섭한 건 하나도 없고, 정말 사~~원 합니다(웃음). 만약 제가 우리 회사의 사옥을 짓는 순간이 온다면, 현재 맡고 있는 공사팀 업무뿐만 아니라 설계에서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참여할 겁니다. 그래야 시작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만들었다는 자랑을 후세에 두고두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문경식 프로 (공사팀)

제 건설사 근무경력 중에 앞으로도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현장,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 사옥을 제 손으로 짓는다면요? 우와,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당연히 온 몸 바쳐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런 날이 올까요?(웃음)



왼쪽부터 최성규, 김응필, 위태봉 프로

위태봉 프로 (설비팀)

이곳 현대해상천안사옥에는 천안아산지역의 전산센터도 들어옵니다. 중요한 공사에 참여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훗날 (주)한라의 사옥을 짓게 된다면, 거창한 말 필요 없이 그냥 딱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책임감을 갖고 멋진 건물을 지을 겁니다.

최성규 프로 (전기팀)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짓는데 제 힘이 들어갔다는 게 참 뿌듯합니다. 우리 회사 사옥을 건설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건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주)한라의 히스토리에 누가되지 않도록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해서 '출근하고 싶을 정도로 편안한' 사옥을 만들 거예요.

김응필 프로 (공무팀)

사옥은 발주처에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공무팀이 할 일이 참 많았죠. 발주처의 요구와 시민들의 민원을 문제없이 해결해나가면서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한라 사옥을 짓는다면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장소로 구성하고 싶습니다. 내 집이 쥔 편하듯, 내회사가 쥔 편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겠죠?(웃음)



왼쪽부터 문경식 프로, 구정명 프로, 김창환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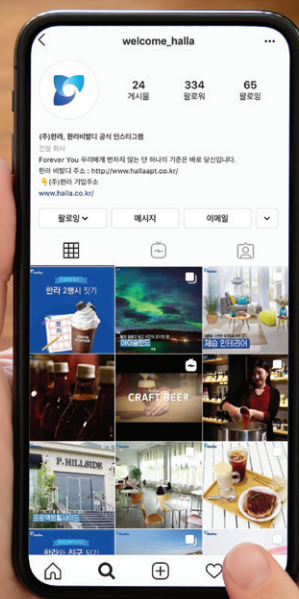
(주)한라가 최근 인스타그램을 개설하며
‘고객과 소통하는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로써 (주)한라의 소셜미디어 공식 채널은
네이버블로그(2012~), 포스트(2016~),
인스타그램(2019~)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주)한라의 소셜미디어 채널들은
각각의 플랫폼 특성에 맞는
소비자 소통형 커뮤니케이션 창구로 운영된다.
또 고객과의 친근함을 높이는 기업 소식과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 콘텐츠를
다채롭게 구성해 유익한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제공하게 됐다.
글 편집부

SNS 마케팅 확장 통한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주)한라, 인스타그램 개설



https://www.instagram.com/welcome_halla/

미래지향의
한라로
Lead to Future 코너에서는 '제대로 일하는 방식: 한라
路' 사례를 공유합니다. 이번 호에는 '제대로-일하는
시스템 구축' 부문의 실천사례를 실었습니다.

건설사들의 치열한 SNS 마케팅 경쟁

건설사는 흔히 보수적이고 딱딱한 기업의 이미지를 대표한다. 그러나 최근 변화한 트렌드에 발맞춰 특히 잠재고객인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이고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의 10대 건설사들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보유하고, 웹 드라마나 영상 매거진, 토크 방송 등 세대 구별 없이 전 연령층이 관심을 가질만한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다. 실제 대우건설과 GS건설, SK건설 등은 각각 아파트 브랜드를 내세운 인스타그램 채널을 열고 건설과 인테리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한라 또한 지속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고객들에게 한 발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 중이다. 30~50대를 주 고객층으로 하는 (주)한라의 블로그는 PC보다 모바일을 통한 유입이 월등히 높다. 30대 고객들이 한라비발디 사업지에 대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입주민들의 인테리어를 엿볼 수 있는 온라인 집들이에 대한 관심과 반응이 뜨겁다. 현재 연간 36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SNS마케팅 채널로 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온라인 채널 필요성 인식한 (주)한라

(주)한라는 ‘친구처럼 소통하는 기업’이라는 메시지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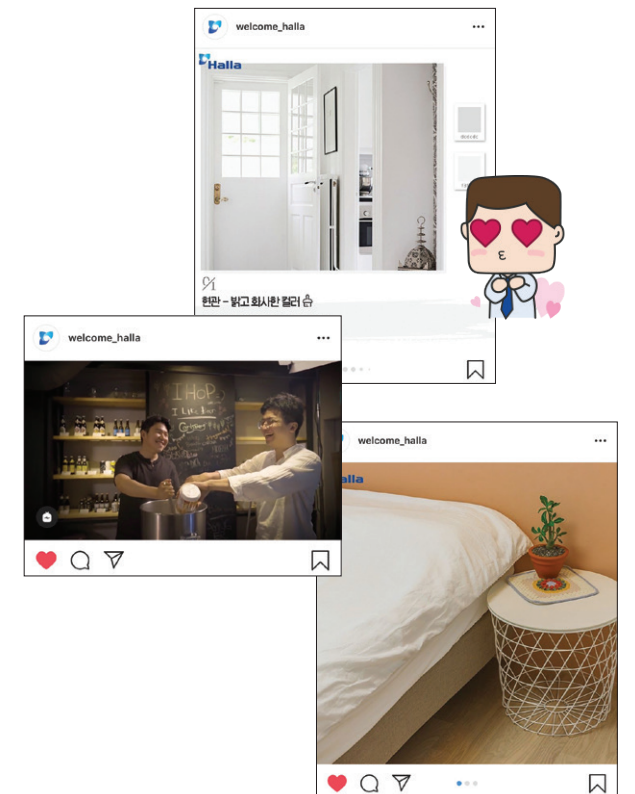
기존 (주)한라의 SNS는 블로그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블로그는 관련 정보를 줄거형태로 기재함으로써 상세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강하지만 고객들이 소비하는 콘텐츠 형태가 점차 가볍고 빠르게 시각적으로 읽히는 콘텐츠로 옮겨감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SNS 채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에 이미지와 영상을 강조한 인스타그램을 신설해 비주얼과 소통을 중심으로 고객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서게 됐다.

이와 관련 기획팀 김진 프로는 “온라인은 제품을 판매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과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이라며 “소비자들이 재미있어하고 관심을 가질만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 궁극적으로는 (주)한라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통, 공유, 문화, 교육을 키워드로 하는 (주)한라의 인스타그램(@welcome_halla)은 앞으로 매체를 확대하고 이미지 중심 채널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인스타그램 개설 시 가장 중시한 것은 모바일 중심의 매체 콘텐츠를 강화하는 부분이다. 모바일 유입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였다. 글에서 이미지로, 정보중심에서 쉽고 간편한 스낵형 콘텐츠로의 변화는 당연한 트렌드이기 때문이다.

영상콘텐츠를 강화한 것도 (주)한라 인스타그램의 특징이다. 콘텐츠에 대한 호감도와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영상을 선택했고, 매 월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내 클래스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 업로드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입사원 인터뷰’, ‘온라인 집들이’ 등 고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영상 콘텐츠들이 다양하다. 앞으로 (주)한라의 인스타그램에서는 지속적인 소비자 관심키워드인 인테리어와 한라비발디를 연상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지속적



66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채널을 마련해

고객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친구 같은 기업’이 되기 위한
(주)한라의 노력이 시작됐다.

99



으로 제공된다. 또한 3단식 피드 배열로, 세련되고 통일감 있게 화면 이미지를 구성함으로써 구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였다. 인게이지먼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기획돼 있다. 이를 통해 팔로워를 늘리고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진 프로는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진솔하고 친근한 대화를 통해 ‘친구처럼 소통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겠다”며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온라인 마케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긋한 꽃향기가 가득,

화사한 플라워 센터피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던
어느 시인의 말과는 달리,
대충 봐도 향기롭고
잠깐 보아도 설레는 온갖 꽃 속에 파묻혀
퇴근 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예쁜 꽃을 보아 기분 좋아지고
공방 안을 가득 채운 꽃향기에 설레었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선물을 할 생각에 행복했던 시간.
정성스럽게 한 송이씩
꽃을 꽃으며 플라워 센터피스를
만들었던 즐거운 꽃 풍경을 전한다.
글 편집부 사진 황원
강사 김정아(플라워 공방 '플로정아' 대표)



당신에게 꽃향기가 나요

공방 안에 들어선 세 프로가 “퇴근 후 꽃 만들러 왔어요~”라고 말을 건넨다. 테이블 위에 준비된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자 박수민 프로, 박은지 프로, 김유현 주니어 프로의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번진다. 하루의 피로가 짝 사라지는 것 같다고 한다. 클래스를 시작하며 인사를 마치자 강사님이 새벽부터 준비했다는 꽃들을 소개한다. 여자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꽃을 하나씩 소개할 때마다 여기저기 감탄 어린 호응이 이어졌다. 색깔이 예쁜 장미에 이어 은은한 향기를 뿜내며 등장한 리시안셔스는 간단하게 ‘리시안’으로 불리는 꽃으로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낭만적인 꽃말을 가졌다고 한다. 우리나라 말로 꽃도라지라고도 하지만 ‘리시안’으로 부르는 게 더 예쁘다고 입을 모았다. 유칼립투스 는 아로마 오일과 약으로 많이 쓰이는 꽃으로 요즘 인기가 높은 ‘핫’한 그린 플라워다. 유칼립투스 중에도 제각각 이름이 있는데 클래스에 준비된 종은 ‘구니’라고 했다. 유칼립투스는 향이 강해서 임신부에게는 유해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듣고서 대상에 따라 꽃도 센스 있게 골라야 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살짝 흔들면 방울 소리가 나는 산다소니아라는 은방울 계열 꽃도 있었다. 소리 덕분에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신부가 든다고 이야기하자 저마다 줄기를 잡고 꽃을 흔들어본다. 보기만 해도 예쁜 수국과 새침한 튜립, 그리고 옥시플라워를 다루는 법도 배웠다. 줄기에서 하얀 액이 나오기도 하니 당황하지 말고 휴지로 닦아가며 다듬을 것. 모두 예쁜 꽃이 다칠세라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소중하게 들어서 향기를 맡아보며 이름을 기억했다.



플라워 센터피스는
꽃을 동그랗게 꽃아서
반구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예쁜 꽃의 아름다움을
듬뿍 느낄 수 있다.



아름다움에도 기술이 필요해요

꽃 이야기에 눈을 반짝인 것도 잠시, 이제 꽃가위를 들고 본격적으로 꽃을 다듬을 차례가 왔다. 가위가 날카롭기 때문에 가윗날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꽃을 다듬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듣고, 다들 조심조심 꽃가위로 가지를 자르기 시작했다. 강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꽃을 조화롭게 배치하기 위해 메스 플라워와 필러 플라워를 다루는 것이 꽃꽂이의 핵심이라고 한다. 장미나 수국과 같이 덩어리가 큰 중심소재의 꽃을 메스 플라워(Mass Flower)라고 하고, 작은 꽃들로 사이를 채우는 꽃을 필러 플라워(Filler Flower)라고 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누구나 멋진 꽃꽂이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세 프로 모두 자신감이 생기는가 싶었는데 강사님이 꽃을 꽂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자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예쁜 센터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했던 것. 꽃들이 물을 나누어 쓰는 ‘오아시스’에 꽃을 사이좋게 꽂는 것이 센터피스 만들기 의 핵심 기술이었다. 꽃을 잘 다듬기 위해서는 마디를 피해 사선으로 잘라야 하고, 트라이앵글 기법을 활용해서 꽃을 꽂아야 했다. 강사님이 설명해주신 ‘트라이앵글 기법’은 삼각형을 기준으로 가운데에 꽃을 꽂아넣는 기법을 말한다.





66

꽃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일이 어려웠어요.
메스 꽃으로 중심을 잡고,
필러 꽃을 사이사이에 꽃으면서
완성하면 끝.
어때요. 잘 배웠나요?

김유현 주니어 프로

99



66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꽃의 길이를 맞추는 일이 힘들었어요.
저는 오늘 하루 고생한 저에게
이 꽃을 선물하고 싶어요.

박수민 프로

99



처음에는 큰 삼각형에서 시작해서 꽃이 채워지며 작은 삼각형에 다시 반복해서 꽃을 꽂아야 했다. 고개를 끄덕이던 김유현 주니어 프로가 설명에 따라 직접 해보더니 “쉽지 않네요.”라고 말하자 모두 한바탕 웃으며 공감했다. 오아시스에 꽃의 줄기가 2cm 정도 들어가도록 꽃을 때마다 아래위로 높이를 재느라 세 프로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소중한 사람에게 꽃을 선물해요

센터피스를 동그랗고 예쁘게 채워넣어야 할 때가 왔다. 자신감이 생겼는지 박수민 프로는 과감하게 메스 플라워를 배치하고, 필러 플라워를 꽂아넣기 시작했다. 모두의 시선이 박수민 프로의 손끝에 집중되었다. 박은지 프로는 센터피스 한쪽에 커다란 수국을 배치해 화사한 매력을 더했다. 강사님의 조언에 따라 그린 플라워를 더하자 아름다움이 더해졌다. 김유현 주니어 프로는 수국을 사용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쁘다며 곧바로 인증샷을 찍었다.

66

이 꽃은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새신랑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신랑한테 길에서 오면서 샀다고
하면서 줄 거예요.
꽃집에서 사 온 줄 알겠죠?

박은지 프로

99



김정아 강사의 플라워 블렌딩을 위한 꿀팁

꽃에도 색깔 맞춤이 중요해요. 컨셉에 맞게 메스 플라워를 결정한 후에 꽃이 가진 그라데이션 색에 따라 다른 꽃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분홍색 꽃을 샀다면 하얀색이나 은은한 색의 꽃을 사면 잘 어울려요. 꽃을 조화롭게 블렌딩했다면 반절 이상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같은 재료로 만들었지만 각자의 성격을 닮은 듯 센터피스의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다. 무심한 듯 내추럴한 매력, 오밀조밀 귀여운 매력, 큼직하고 화려한 매력. 세 프로가 만든 플라워 센터피스는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이고, 보면 볼수록 예쁘다는 장점이 있었다. 다음날이 되면 빈 자리 사이에 꽃이 만개해서 예쁘게 채워질 거라는 강사님의 이야기에 다들 자신이 만든 플라워 센터피스를 이리저리 살펴본다. 클래스가 끝나자 서로 자랑하듯이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대해 말한다. 집에서 아내가 오길 기다린다는 남편에게 선물할 것이고, 회사 사무실을 환하게 밝혀 줄 선물이며, 수고한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했다. 향긋한 꽃을 선물 받고 기분 좋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실패할 리 없는 행복한 꽃 선물을 준비해보자. 바라만 보아도 예쁜 꽃이 당신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한라그룹, 2박 3일간의 비스켓(비전을 스스로 캐치하라) 캠프 개최



한라그룹이 단기 청소년 리더십 캠프 ‘비스켓(비전을 스스로 캐치하라)’을 개최했다.

‘비전을 스스로 캐치하라’라는 타이틀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진행 중인 비스켓 캠프는 지난 7월 24일부터 2박 3일간 한라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다.

비스켓 캠프는 멘토 대학생과 멘티 중학생이 1대 1로 짝을 이뤄 진행되는 단기 청소년 리더십 캠프이다.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30여 명의 멘토들이 20여 명의 경기도 평택시 중학생 멘티들과 함께 했다. 비스켓 캠프의 봉사자이자 대학생 멘토들은 개최 하루 전에 모여 자기소개를 비롯해 멘토의 역할, 본인이 생각하는 멘토란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공유하며 중학생 멘티를 맞을 준비를 했다.

이번 비스켓 캠프에는 특별한 멘토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 군인 멘토와 4회 동안 연달아 참여한 멘토가 눈에 띄었다.

서울에서 온 군인 우영식 멘토는 “현재 해병대 일병으로, 입대 전에 해봤던 비스켓 캠프 활동이 좋아서 일부러 이번 비스켓 캠프 일정에 맞춰 휴가를 나왔다”면서 “제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배우는 것들이 더 많은 캠프”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온 장여해 멘토는 네 차례 캠프에 참여한 참가자로서 “봉사라는 개념이 아닌 멘티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 자발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며 “새로운 친구(멘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나 자신의 진로나 꿈에 대해서도 명확해진다”고 전했다.

비스켓 캠프에서는 마술사와 함께 만들어보는 꿈에 대한 동기부여 활동과 중앙대학교 예술동아리 ‘위드아트’ 팀과 함께 오감을 이용한 프로그램, 비전 로드맵을 만들어 과거를 돌아보고 긍정적인 미래상을 꿈꿔보는 맞춤형 비전 교육 활동 등이 진행됐다.

멘토들은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기 위함이 아닌 멘티들과 함께 진로와 꿈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Town Hall Meeting 개최



당사는 8월 19일 본사 7층 라운지에서 본사 및 인근 현장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Town Hall Meeting을 개최했다. 이번 Town Hall Meeting은 이석민 사장의 주재로 경영 현황 및 당사 조직 개편에 대한 배경을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민 사장은 올 상반기 호칭제 개편, 결재 간소화, 복장 자율화를 도입했지만 묵은 관행과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선 빠르고, 단호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체질개선을 위한 4가지로 영업 강화, 현장 권한 및 책임 확대, Young & New 조직의 실현, 구매 부분의 새로운 방법과 방향 설정을 강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조직 개편이 이뤄졌음을 밝혔다.

이후 Q&A를 통해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끝으로 이석민 사장은 “변화합시다. 회사만큼이나 개개인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렵고 절실한 현실을 스스로가 느끼고 변화를 실천할 수 있으면 합니다”라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 Town Hall Meeting 영상은 당사 인트라넷 한마루 경영진 메시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동했습니다

고효진 프로	방글라실럿공항
권혁성 프로	삼성레트로핏
기민주 프로	인프라사업관리팀
김영식 프로	삼성레트로핏
김원경 프로	인프라기술영업팀
김윤조 프로	부평오피스텔
김정환 프로	삼성레트로핏
김태우 프로	건축사업관리팀
류승상 프로	인프라사업관리팀
변강욱 프로	삼성레트로핏
송승안 프로	송도업무시설
신수진 프로	중로오피스텔
양명훈 프로	김해삼계두곡APT
오희진 프로	인프라사업관리팀
이광석 프로	인프라사업관리팀
이대운 프로	현대오일뱅크돌핀부두
이상민 프로	신사업팀
이종문 프로	창원하수관로정비
이종희 프로	부산신항서컨테이너2차
이진민 프로	삼성화성조경공사
이충길 프로	인프라사업관리팀
임채근 프로	인프라사업관리팀
정순화 프로	동반성장팀
조민철 프로	인프라기술영업팀
조정일 프로	인프라사업관리팀
조항진 프로	건축사업관리팀
채은하 프로	품질관리팀
최태환 프로	부산신항서컨테이너2차
하성수 프로	남양주현대아울렛
한정렬 프로	방글라바크하리교량
홍정화 프로	삼성화성조경공사

환영합니다

권혁성 프로	삼성레트로핏
김상민 프로	김해삼계두곡APT
김영식 프로	삼성레트로핏
서형원 프로	삼성화성조경공사
최섭 프로	남양주현대아울렛
한기정 프로	남양주현대아울렛
황성욱 프로	수원역복합건물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식 주니어프로	현대해상천안사옥
정광준 프로	삼성레트로핏
편종석 프로	삼성레트로핏

축하드립니다

김해름 프로(본인결혼)	인프라기술영업팀
--------------	----------

만수무강하십시오

신용호 프로(부친칠순)	김해삼계두곡APT
김성진 프로(장인칠순)	해외사업팀
김현태 프로(장모칠순)	법무팀
윤성태 프로(장모칠순)	기전팀
정재욱 프로(장모칠순)	남양주현대아울렛
신동욱 프로(부친회갑)	루원시티조성
장주영 주니어프로(부친회갑)	회계팀
김보경 프로(모친회갑)	자금팀
신동욱 프로(모친회갑)	루원시티조성
한승민 프로(모친회갑)	동반성장팀
이원준 프로(장인회갑)	서해선3공구
박해찬 프로(장모회갑)	S사업팀
강혜인 프로(시모회갑)	인프라사업관리팀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최진우 주니어프로(외조부상)	김해북부APT
김현식 프로(외조모상)	삼성레트로핏
이성호 프로(배우자상)	삼성레트로핏

Get Healthy



하루  5분 투자!

앉아서 일하는 당신, 따라 해라! 복부 및 하체운동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다 보면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생기곤 한다. 미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허리와 다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건, 복부와 하체운동. 별도의 도구 없이 내 몸 하나만으로도 가능한 운동이니, 꾸준히 따라해 보자.
동작 시연 시그마스스포츠클럽 SFC점 김수현 트레이너

탄력 없는 복부와 허벅지 안쪽 근육을 강화해주는 **마운틴 클라이머 Mountain Climber**



① 손바닥을 의자에 대고 엎드린다.



② 상체의 중심이 앞뒤로 이동하지 않도록 유지한 채 왼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린 채 가슴 가까스로 당겨준다.



③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다리도 가슴 가까스로 당겨준다. 본인의 근력에 맞게 1세트 당 15회씩, 3세트 반복해 운동한다.

Point!

다리의 힘만 사용하지 않고 복부에 힘을 주어 무릎을 가슴 가까스로 당기는 게 중요하다. 또한 무릎을 당길 때 허벅지 안쪽 근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바깥으로 벌려주도록 한다.

앉아만 있는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하체운동 **사이드 런지 Side Lunge**



① 손은 각지를 끼고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② 오른쪽 무릎을 접어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이 때 상체의 중심축은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



③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운동한다. 본인의 근력에 맞게 1세트 당 15회씩, 3세트 반복해 운동한다.

Point!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한 채 동작을 해야 한다. 또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발목이 꺾이지 않게 주의해 운동한다.

B-cut Story



돌도 씹어 먹을 당신 - 딸 바보

이팔청춘 나이도 아닌데 뭐든 먹을 수 있는, 아니 먹여주는 사람이 있다. 이름하야 ‘딸 바보’. “아빠, 아~~” 하연이의 애교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박해찬 프로. 그게 맛있는 과자든 플라스틱 장식품이든 알 바 아니다. 하연이가 주는 건데 뭐든 못 먹을까. 하연이가 건네는 건 무엇이든 받아먹을 기세로 입을 크게 벌리는 박 프로의 모습에서 ‘돌도 씹어 먹을, 딸 바보’의 모습이 보인다. 이 모습, 이 행복 영원하길 소망해본다.

Editor's Note

9월, 아침저녁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결에 가을이 묻어나는 듯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이 달에 새 학년의 새 학기가 시작한다죠. 이제 여름휴가의 추억을 연료 삼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일상을 성실하게 수행해나가야 할 시간이에요. 여름휴가를 누구보다 즐겁게(?) 다녀온 직장인들의 일상을 방해하는 건 ‘휴가 후유증’이라 불리는 육체적, 심리적 피로감입니다. 휴가 내 흐트러진 생활 패턴 때문인데요. 피로, 집중력 감소, 무력감, 소화불량, 심지어 복통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휴가 후유증을 극복하려면 평소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휴가 후 1~2일은 휴식할 수 있는 일정을 미리 계획해두시는 게 가장 좋겠죠. 직장인들에게 반가울 소식이라면 올 추석은 예년보다 조금 일찍 다가올 예정인데요. 한라인분들 모두 추석 연휴 가족들과 오붓하고, 풍성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명절 후유증도 다들 유의하시고요!(웃음)

Digital Curator's Talk!

건설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서둘러라
- 시급한 한국 건설 산업의 DT

해외의 건설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DT)’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업체들도 디지털 플레이어가 되어야만 급성장하는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3차원 설계를 통한 실시간 분석기법,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도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이라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수준은 개별 기술 중심으로 논의하는데 그쳐 있습니다. 이제 외부 환경변화를 이해하고 전환을 통해 대응해나가야 해요. DT를 서두르세요. 그래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한마루 내 ‘Something New’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otice

사보 주재기자

허민 프로(동반성장팀), 강길현 프로(건축사업관리팀),
이진민 프로(삼성화성조경공사), 김민중 프로(인프라사업관리팀),
조세웅 프로(S사업팀)

정기 구독 & 주소 변경

기획팀으로 전화(02-3434-5791)하시거나
메일(soomin.lee@halla.com)로 신청해주세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웹진으로 연결됩니다.
<http://hallawebzine.co.kr/>

김해가 꿈꾸던 신항주거타운의 중심 스마트 라이프의 시작

김해 삼계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1,936세대 압도적인 스케일에

14개 테마공원,

수영장을 품은

초대형 커뮤니티시설까지-

김해에 없던

스마트 라이프를 만나보십시오



약 **1,000대** 이상의 **여유 주차**와 약 **9,000㎡** **커뮤니티시설**

- | | | | | |
|---------|--------|--------|-----|----|
| 7레인 수영장 | 대형 찜질방 | 휘트니스센터 | 탁구장 | 카페 |
| 유아플 | 사우나 | 골프연습장 | 당구장 | |



초특급 교통 | 가야대역 도보 6분, 남해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도로, 국도 14번
수준급 교육 | 신명초교, 삼계중, 분성고, 분성여고, 가야대학교 등 우수한 학군
정상급 생활 | 단지 앞 편의시설 및 가야대역, 대형마트, 백화점 이용이 편리
최상급 자연 | 해변천, 화정공원, 무척산, 김해시민체육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

시행 | 삼계두곡 | 지역주택조합
시공 | Halla 주|한라
신탁 | KOREA trust

3월 OPEN
055) 311.7400

* 상기 이미지는 소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임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마다의 색채 등은 배치설치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4㎡ / 75㎡ / 84㎡ 총 1,936세대 중 일부 일반분양